

원불교 마음공부에서 ‘대중(大中)’의 의미*

임전옥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Daejung’ in Won-Buddhist Mind Study

Lim, Jeon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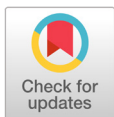
Wonkwang University

jineun@wku.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pecific meanings of the term “*daejung*” found in the scriptures and historical documents of Won-Buddhism. For this purpos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by professionals with all of the 38 contents extracted from the eight kinds of scriptures and historical documents. The result revealed that *daejung* includes four meanings: ‘standardizing,’ ‘keeping one’s mind,’ ‘observing and recognizing one’s mind,’ and ‘contemplating, reflecting, and looking at things as it is with the Mind.’ In the relationship with Won-Buddhist mind study, *daejung* has three features. First, in application to mind study, each meaning could be applied differently because each person has their own points like standardizing ‘what’ in the practice of mind study. Second, the four meanings tend to overlap each other. Third, *daejung* is based on the checking mind. Next, a survey was performed to examine how people understand the meaning of *daejung* and its role in mind study. 78 Won-Buddhist ministers-in-training, who are studying in the university or the graduate school of Won-Buddhism, participated.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term *daejung* includes the four meanings identically same wi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with the 38 contents ahead. According to the answer by students, *daejung* plays a role in ‘presenting a goal, a purpose, and a direction,’ ‘presenting a standard,’ ‘helping to observe one’s mind, to watch over one’s mind, and to sustain their practicing mind,’ and ‘helping to hold one’s center in one’s mind.’ This study has two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ministers-in-training in Won-Buddhism. First, students need to expand their awareness toward understanding every meaning of *daejung* because the result showed that many students know only a part. Second, whenever speaking or teaching about *daejung* to the students, it must be delivered in a clear sense because *daejung* has multi-meaning.

Key words : Won-Buddhist Mind study, Daejung, Meaning, Won-Buddhist ministers-in-training, Education



OPEN ACCESS

KJRE. 2021 February, 65(1): 37-59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10003>

Received: January 17, 2021

Revised: February 10, 2021

Accepted: February 25, 2021

Copyright: © 2021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들어가는 말

마음은 잘못 사용하면 재앙의 원천이 되지만, 잘 사용하면 개인적으로는 무량한 행복의 원천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다.¹ 원불교의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²는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³고 하였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공부야말로 개인의 인격뿐 아니라 인생에서 지혜와 복록을 얻는 근간이 된다. 정산 종사⁴는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공부를 여의고 어찌 행복의 결실을 바라리오.”⁵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불교에서는 마음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마음공부를 교리와 사상의 핵심을 담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삼는다. 원불교 마음공부란 결과적으로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경계에 접하여 이 경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객체적 자아)을 또 다른 마음(주체적 자아)이 지켜보면서, 성품에 비추어 반응하는 마음이 적절한지 대조하는 과정을 말한다.⁶ 말하자면, 경계를 접하여 성품(진공)에 대조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실행하여 모두 은혜롭게 생활하자는 것”이다.⁷ 여기서 경계란 “내 정신(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마음)을 빼앗아 가는 사람, 관계, 사건, 사물”을 말한다.⁸ 경계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필수적이며, 결국 마음공부는 이 경계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경계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행위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천만 경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 대중을 잡거나 주의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계에 임하여 때론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흔들리지도 말아야 하며’, ‘이겨 나가기도 해야 한다.’ 때론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나쁜 마음의 싹을 제거하기도 하고’, ‘착심을 놓기도 해야 한다.’”⁹

이 중에서 특히 마음 대중을 잡는 것, 즉 ‘대중(大中)’이라는 표현은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원불교 초기교서를 비롯하여 「정전」, 「대종경」 등 여러 교서와 자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소태산 대종사는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삼학의 대중을 놓지 말라.”¹⁰고 하였고, 정산 종사는 “공부를 하는 데에는 대중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¹¹고 하였는데, 이러한 법문들은 마음공부에서 대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불교 대사전에서는 대중의 의미에 대해 “(1)겉으로 대강대강 어렵짐작하는 것. (2)마음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속으로 어떤 표준을 잡아가는 것. 원불교에서는 마음공부에 있어서 대중 잡는 공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¹²라고 하고 있다. ‘대중’의 일반적인 의미가 “(1)대강으로 하는 짐작. 또는 겉가량으로 짐작함. (2)표준이나 기준”¹³임을 감안해보면, 이러한 일반적 의미에 더하여 원불교에서는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음공부와 관련성 나아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불교에서의 ‘대중’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개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모호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대종경」 수행품 33장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문정규의 대화 중 “경계를 당할 때에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오리까”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나니”¹⁴에서의 대중은 취사를 할 때 어떤 것을 ‘표준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6장 “우리가 세상에 출신하여 안위의 모든 경우를 당할 때에 그 가지는 바 정신이 오직 전일함이 평상심이니, 편안한 때에도 항상 조심하는 대중을 놓지 아니하고”¹⁵에서의 대중은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사전적으로 제시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관점에서는 두 표현이 서로 미묘하게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대중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서 및 자료에서의 용례들을 분류하고 분석할 것이며, 나아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불교 예비교무들이 실제로 대중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공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교법의 본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마음공부의 바른길을 잡아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원불교 예비교무들을 대상으로 대중에 대한 인식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마음공부와 의 현실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비교무 교육과 관련해서도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원불교학을 정립해 나가는 여정에 있어서도 보다 정교한 해석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II. 원불교 마음공부

1. 마음공부의 필요성

오늘날 인류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고도로 발달된 사회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인간성 상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과 갈등, 경제적 격차로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태산 대종사는 100여 년 전 원불교의 문을 열면서, 개교표어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¹⁶고 하였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힘을 길러야만 과학문명이라 대변되는 물질적 풍요에 끌려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과학문명을 선용하는 참다운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은 물질문명의 발전을 따라 사·농·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 기구도 많이 화려하여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어진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 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 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중략>...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用心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타로 모든 것을 선용(善用)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이다.”¹⁷

소태산 대종사가 제시한 개교표어는 “마음공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내포”¹⁸하고 있다. 즉, 원불교 마음공부는 정신개벽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음사용 능력을 갖게”¹⁹하는 길이다. 용심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현실생활에서 그 실효를 얻게 하는 유용한 공부인 것이다. 정산종사는 “마음공부 잘 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라”²⁰고 하면서 주체성을 가진 세상의 참 주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공부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해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도, 마음공부는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 원불교 마음공부의 정의

마음공부는 한마디로 “마음을 바로 알고, 마음을 지키고 단련하며, 마음을 바로 쓰고 지혜롭게 쓰는 것”²¹을 말한다. 먼저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조명규와 이경열²²은 선행연구들을 개괄한 후, 마음의 개념은 성품, 정신, 마음, 정서, 의지, 생각, 근본심, 분별심 등 여러 차원과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의식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명규와 이경열은 마음의 개념을 본래심과 분별심으로 구분하였다. “본래심(참마음)이란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이며, 분별심이란 사랑계교심·분별시비심·차별심·분별망상심을 통틀어 말한다.”²³ 본래심이 일원상의 진리 그대로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마음이라면, 분별심은 분리된 개별자로서의 나(자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계가 있을 때 분별심이 작용하는 것을 아는 것, 본래심을 지키는 것, 본래심에 비추거나 반조하는 것 등은 마음공부의 중요한 측면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불교 마음공부의 개념은 광의적으로는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사은(四恩)²⁴ 신앙과 삼학(三學)²⁵ 수행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낙원세계를 이루는”²⁶ 것이며, 협의적으로는 “경계를 접할 때 성품(眞空)에 대조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실행하여 모두 은혜롭게 생활하자”²⁷는 것이다. 즉,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심 그대로의 자리에서 분별심의 작용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생활이며, 개인과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사·농·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가·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²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과 마음공부, 동과 정이 따로 있지 않고 일상의 생활이 마음공부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상의 경계에서 일어나는(작용하는) 마음을 실제 공부의 대상으로 삼도록”²⁹ 하였으니, 개개인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경계 상황이 바로 마음공부의 대상이며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III. ‘대중’의 용례 분석

여기에서는 원불교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대중의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고, 용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중’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교서 및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고, 의미를 중심으로 용례들을 분류하였다.

1. 용례에 따른 분류

1) 방법

용례 분석에 사용된 교서 및 자료는 「정전」³⁰, 「대종경」³¹, 「정산종사법어」³², 『대산종사법어』³³, 『대종경선외록』³⁴, 『한울안한이치에』³⁵, 『대산종사법문집 1,2,3,4』³⁶, 『원불교 교고총간』 전 6권³⁷이며, 이 중에서 ‘대중(大中)’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곳은 총 47건이었다. 발췌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한 가지 법문이나 글 속에서 두 번 이상 언급된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 외에는 다수의 언급도 하나의 항목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같은 법문이 서로 다른 출처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도 이를 한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출처 표기의 우선순위는 현재의 교서를 위주로 하였는데, 예를 들어 『원불교 교고총간』 제4권 「불교정전」의 염불법에 나타난 대중 표현은 현 「정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전」을 그 출처로 보았다. 그 결과, ‘대중’이라는 표현이 수록된 자료는 총 38건으로 압축되었다.

분류 절차는 먼저 본 연구자가 문맥상의 의미를 고려하여 용례들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원불교학 전공 박사학위자 2인, 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자 1인, 경력 25년 이상의 원불교교무 1인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분류 기준과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수정하였다.

2) 용례에 따른 분류 결과

38건의 내용을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결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표준하다, 기준하다,' 둘은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셋은 '살피다, 알아차리다' 넷은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이다.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하다, 기준하다

내용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 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위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부니라. ³⁸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삼학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중략>...삼학의 대중 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 나가기가 어렵나니라.” ³⁹
“경계를 당할 때에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리까”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 을 삼나니...<중략>...이 세 가지로 대중 을 삼은즉 공부가 항상 매(昧)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지나니라.” ⁴⁰
“참다운 사정은 호리도 틀림없는 진리에 맡기고, 이번에 나타난 등급으로는 앞날의 적공에 더욱 분발할 대중 만 삼는다면 이분들이 참으로 알뜰한 우리 동지요 참으로 등급 높은 공인이니” ⁴¹
“생전 예수재의 본뜻은 생전에 미리 마음을 닦고 복을 지으라 함이거늘, 공부의 대중 없이 끼니만 굶은들 무슨 실효가 있으며” ⁴²
“공부를 하는 데에는 대중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나니, 경전도 대중 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비록 몇 백권을 읽어도 서자서 아자아(書自書 我自我)로 아무 소득이 없나니라.” ⁴³
“상(賞) 없는 가운데 큰 상이 있고 벌 없는 가운데 큰 벌이 있나니, 그대들은 나타나는 상벌에만 끌리지 말고 참과 거짓에 대한 마음 대중 을 놓지 말라.” ⁴⁴
“유아작용(唯我作用)으로 공부를 하라. 자기를 대중 삼아 공부를 하라.” ⁴⁵
“항상 자기가 자기를 대조하여 三十계문을 엄숙하게 지키고 솔성요론을 실천 궁행하여 삼대력 얻어 나가는 대중 을 잡는 것이 곧 종교심이니라.” ⁴⁶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다 하시니 어떻게 대중 을 잡겠습니까?’ ⁴⁷
체반은 공부에 있어서도 일원상은 오직 원적하고 분별 주착이 없다 하여 입정출정의 기회와 착이불착(着而不着)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아무 대중 없는 무기식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⁴⁸
“경계를 당할 때 고통스럽게 여기거나 퇴보하지 말고 그 경계를 잘 관찰하여 보라. 몸은 하인(下人)이 되고 마음은 주인이 되어 화내지 말고 주인의 입장에서 나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으로 알아라. 그렇게 대중 잡고 삼년간만 해보면 그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⁴⁹
첫째 배우는 곳을 정하고 그것을 공부로 발견하여 세 주머니를 차고 일일시시로 그 대중 을 잡아 나가는 사람과 배우는 것이 없고 공부라는 관념이 없이 되는데로 나가는 사람과는 천양지판으로 다르나니 그 대중 을 잡고 나가는 사람은 천사만사가 다 그 공부재료가 되어 전진과 향상이 있지만은 모르는고 대중이 없는 자는 천만사를 지내고 천만년을 산다 하더라도 항상 그 모양으로 진보가 없을 것이요 ⁵⁰
더욱이 현세와 같은 복잡다단한 세상 중에서는 하로 한 때라도 놓지 말고 도 닦는다는 마음을 챙겨보고 공부하는 대중 을 잡아갈 것이며 일을 지낸 후에는 다시 생각해보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 ⁵¹
사(事)와 정(情)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이 미하고 전도한 사람이니 금시에 수도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되 마음으로는 퇴굴심을 내어 도리어 대중 없는 공부에 떨어진 이가 다 너의 의심하는 바이니 ⁵²

(2)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내용
일념의 대중 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 이 있고 보면 곧 삼매(三昧)를 증득(證得)하리라. ⁵³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 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一行三昧)의 공부를 성취하 나니라. ⁵⁴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 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 을 놓아 버리지는 아니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⁵⁵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피서 역경을 돌리어 능히 순경을 만들며, 순경이면 또한 간사하고 넘치는 데에 흐르지 않게 하는 깨끗한 대중 이 계속되어야 가히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 ⁵⁶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 이 없이 되는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근기니라.” ⁵⁷
“편안한 때에도 항상 조심하는 대중 을 놓지 아니하고 위급한 때에도 항상 규모 절도를 범하지 아니하여 한가히 거(居)하나 난중에 처하나 그 부동하고 유유한 정신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안위에 나타난 평상심이니라.” ⁵⁸
“일을 시작할 때에만 공부심으로 하여 보리라는 대중 을 가지고, 일단 착수한 뒤에는 그 마음도 놓아 버려야 일심이 되나니라.” ⁵⁹
“제3조는 묻고 배우는 대성(大成) 공부로 천지는 법이요 산 경전이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하는 대중 을 놓지 말고 경전과 스승을 정하여 사제 훈도로 늘 묻고 배우자는 것이요” ⁶⁰
“셋째, 활용할 대중 을 가지고 들으라. 설법의 잘 하고 잘못하는 가능이나, 법설을 말만 취하여 옮기려는 생각이나, 또는 누가 이 법설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걸려 있지 말고, 진실로 내가 이 법문을 어떻게 활용하여 살려낼 것인가 하는 대중 을 가지고 실지 경계에 다달아서 들었던 법문을 연관시켜 실천하는 것이 들을 때나 활용할 때에 최고 차원의 법문이 될 것이다.” ⁶¹

(3) 살피다, 알아차리다

내용
단전에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⁶²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만 잡아갈지니라. ⁶³
“‘보살은 시끄러운 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외도(外道)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 하였나니, 이는 오직 공부가 마음 대중 에 달린 것이요, 바깥 경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르심이니라.” ⁶⁴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 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 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 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正念)을 가지자는 공부니” ⁶⁵
“공부가 책 보고 글 배우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일동 일정에 대중 잡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 다 공부의 참 결과를 얻나니라.” ⁶⁶
“사참은 외적인 현실 참회를 이름인바 매일 마음을 대중 잡고 반성하며 고쳐 나가는 방법이요” ⁶⁷

“그대들은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대중 하여 애착 탐착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⁶⁸
또 하나는 목조선이라, 이는 적적성성한 진여체를 묵묵히 관조하고 있는 선법인 바 단전에 마음을 주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게 하고 마음의 거래를 대중 잡는 단전주법이 대표적인 선법이니 ⁶⁹
첫째, 매일 정해놓고 밤중이나 취침시에 일체 생각을 다 비어 버리는 공부를 일삼되 대중 잡는 마음만은 면면(綿綿)하게 놓지 말기를 길들일 것이며, 둘째, 오래 성숙(成熟)되는 대로 그 대중 잡았던 마음까지 서서히 놓아 버리기를 길들일 것이며 ⁷⁰

(4)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

내용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녕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 이 없는 마음이니라.” ⁷¹
“성(性)은 일념미생전으로 꿈도 없는 때요, 심(心)은 희로애락의 분별심은 없어도 분별낼 만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대중 심이 있고 영령함이 있는 것이며, 기(氣)는 성과 심을 담아 있는 육체요, 이(理)는 행하는 것과 보는 것과 숨쉬는 것과 희로애락이 발하는 이치이다.” ⁷²
동정 간에 오직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조하여 낮과 밤에 그 마음 대중 을(일원상에 반조하는 대중) 놓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른바 일원상 체받는 법이니 ⁷³
다시 수양의 요령을 말하자면, 적적성성시(寂寂惺惺是)니, 풀어 말하면 고요한 가운데 대중 을 놓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요, 적적무기비(寂寂無記非)니, 풀어 말하면 고요한 가운데 대중 잡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른 것이며, 성성적적시(惺惺寂寂是)니, 풀어 말하면, 대중 을 잡아 나가다 대중 을 잡았다는 마음까지 놓은 것은 옳은 것이요, 성성산란비(惺惺散亂非)니, 풀어 말하면 대중 잡아 가는 중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른 것이다. ⁷⁴
오족 번뇌와 망상은 멸할 것이요 대중 잡는 마음은 멸하지 안이하며 다만 공한 대에 마음을 어릴 것이요 주착(주착)한 대에는 마음을 어리지 않을 것이니라. ⁷⁵

분류 결과, ‘표준하다, 기준하다’의 의미에 해당되는 내용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에 해당되는 항목이 9건, ‘살피다, 알아차리다’에 해당되는 항목이 9건, 마지막으로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에 해당되는 항목이 5건이었다.

2. ‘대중’의 의미

용례 분류 결과에 의하면, 원불교 마음공부에 있어서 ‘대중’은 크게 네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은 ‘표준하다, 기준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산종사는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⁷⁶하다고 하였는데, 대중이 갖고 있는 ‘표준하다, 기준하다’의 의미는 바로 마음 공부에 있어서 기점을 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점(基點)은 기본이 되는 점⁷⁷을 말한다. 특히 마음공부에서의 표준과 관련하여 소태산 대중사, 정산 종사, 대산 종사의 많은 법문이 전해지고 있는데,⁷⁸ 그만큼 명확한 표준을 갖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용례에서도, 「정전」 염불법에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⁷⁹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대중은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과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표준하고 이를 근본으로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어지는 문장에서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위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부니라.” 라고 하였으므로, 생멸과 거래가 없는 자성, 즉 본래심을 표준으로 하여 흩어지는 정신을 일념으로 모으고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생멸과 거래가 없는 각자의 본래심이 염불하는 마음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의 대중이 항상 자성, 즉 본래심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삼학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⁸⁰에서는 대중을 평소 생활 속에서 삼학공부를 표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계를 당할 때 고통스럽게 여기거나 퇴보하지 말고 그 경계를 잘 관찰하여 보라. 몸은 하인(下人)이 되고 마음은 주인이 되어 화내지 말고 주인의 입장에서 나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으로 알아라. 그렇게 대중 잡고 삼년간만 해보면 그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⁸¹에서의 대중은 경계가 올 때마다 자신을 키우고 단련해주는 귀한 손님으로 아는 그 마음가짐 자체를 표준으로 삼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표준하다, 기준하다’라는 의미 내에서도 무엇을 표준하고 기준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각자의 본래심으로부터 삼학공부, 공부심, 취사, 율고 그림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대중은 마음공부의 과정에서 표준이나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를 단련하거나 체득해나가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공부 정도 등에 따라서 마음공부의 표준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대중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이다. 마음공부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람직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정진해가는 것으로, 두 번째 의미는 이를 말하는 것이다.

용례에 의하면, 「정전」 염불법의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三昧)를 증득(證得)하리라.”⁸²에서의 대중은 염불을 할 때 한 마음을 지키라는 것으로, 잡념이 생기거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염불 문구나 소리에 마음을 주하여 다시 돌아오는 공부심이 있어야 한다. 일념에 대한 분명한 앎과 체득이 깊어질수록, 궁극적으로는 삼매를 증득하여 참다운 염불의 경지를 맛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용례인 「대종경」 수행품 34장의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一行三昧)의 공부를 성취하나니라.”⁸³라는 내용은 소태산 대중사가 제자인 이춘풍과 함께 청련암 뒷산 재를 넘으면서 일심공부에 대해서 설한 법문의 일부로서, 어려운 경계에서나 쉬운 경계에서나 일심을 지키는 데 공을 들이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즉, 대중이 경계 속에서 일심을 지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마음을 갖거나 지킨다는 의미는 다른 용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 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 버리지는 아니하나니”⁸⁴에서의 대중은 원래 가졌던 결심과 뜻을 혹시라도 놓아버리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피서 역경을 돌리어 능히 순경을 만들며, 순경이면 또한 간사하고 넘치는 데에 흐르지 않게 하는 깨끗한 대중이 계속되어야 가히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⁸⁵에서의 대중은 설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신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신심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혹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방심하지 않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대중의 두 번째 의미는 일념이나 일심으로부터 마음공부의 과정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중의 첫 번째 의미인 '표준하다, 기준하다' 역시 표준이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에 담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두 번째 의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어떤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두 의미 모두에 공통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이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근본을 삼을 만한 어떤 특정한 지점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마음상태나 자세, 공부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의미와는 구분이 된다. 즉, 더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세 번째 의미는 '살피다, 알아차리다'이다. 동정 간에 주의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으로, 매 순간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가능하면 찰나 간에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正念)을 가지는 공부"⁸⁶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대중은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다.

용례에서, "단전에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되"⁸⁷에서의 대중은 단전에 기운이 주해 있는 그 느낌에 주의를 두고 지속해서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⁸⁸에서의 대중은 경계를 접하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끌림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살피다, 알아차리다'는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더 세분화된다. 하나는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⁸⁹ "대중 잡는 마음만은 면면(綿綿)하게 놓지 말기를 길들일 것이며"⁹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의 흐름을 살피고 지켜보는 마음, 즉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 둘은 그 주의심의 정도가 충분히 '민감해서' 매우 사소한 흐름까지 지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용례 중 "그대들은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대중하여 애착 탐착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⁹¹에서와 같이 애착 탐착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착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습관과 업력의 무게에 따라 자아의 분별심이 개인의 의식 저변에서 교묘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⁹², 대중은 이러한 작용까지도 감지하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인식의 민감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미는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이다. 용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의 대중은 진리적인 속성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용례에서 "성(性)은 일념미생전으로 꿈도 없는 때요, 심(心)은 희로애락의 분별심은 없어도 분별낼 만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대중심이 있고 명령함이 있는 것이며"⁹³에서는 대중이 분별은 있으나 치우치지 않는 본래심의 영지(靈知)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으며, "다시 수양의 요령을 말하자면, 적적성성시(寂寂惺惺是)니, 풀어 말하면 고요한 가운데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요, 적적무기비(寂寂無記非)니, 풀어 말하면 고요한 가운데 대중 잡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른 것이며, 성성적적시(惺惺寂寂是)니, 풀어 말하면, 대중을 잡아 나가다 대중을 잡았다는 마음까지 놓은 것은 옳은 것이요, 성성산란비(惺惺散亂非)니, 풀어 말하면 대중 잡아 가는 중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른 것이다."⁹⁴에서의 대중은 분별하는 생각이 없는 가운데 자성의 혜광으로 그대로를 밝게 비추는 상태를 말한다. 이 역시 본래심의 영지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기회에 진심이 동하거나 치심이 동하거나 기타 무슨 망상이 동할 때에도 또한 그와 같이 힘써서 동정 간에 오직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조하여 낮과 밤에 그 마음 대중을(일원상에 반조하는 대중) 놓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른바 일원상 체받는 법이니"⁹⁵에서는 일원상의 진리를 체받기 위해서는 일원상의 진리에 자주 반조함으로써 동정 간에 자성 그대로의 빈 마음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대중이라는 표현으로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의 네 번째 의미인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는 경계를 대할 때 자아의 습관과 업력에 물들지 않은 본래심의 영지 그대로 비추는 것이며, 또한 경계따라 일어난 마음을 본래심에 관조하고 반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산 종사는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명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하매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 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⁹⁶라고 하였다.

3. 원불교 마음공부와 ‘대중’: ‘대중’의 특징

원불교 마음공부와 의 관계에서 대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의 한 가지 의미 내에서도 마음공부상의 실제 적용에서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된 용례들 내에서도 진리적인 측면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으로부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항목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와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다 하시니 어떻게 대중을 잡겠습니까?’의 대중은 모두 ‘표준하다, 기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둘은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이라는 본래심의 차원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아는 시비구분의 차원으로서 서로 다르며, 따라서 무엇을 표준이나 기준으로 삼는지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중의 네 가지 의미 중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를 제외한 세 가지 의미 모두에 해당되었다. 이는 개인이 중점을 두고 있는 마음공부의 주제, 마음에 대한 직관력 정도, 마음공부에서의 체험이나 순숙 정도 등에 따라서 대중의 의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실제 마음공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 가지 의미 내에서도 대중을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대중을 마음공부에 적용할 때도 먼저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에 대한 네 가지 의미가 서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표준하다, 기준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기술한 바와 같이, 네 가지 의미 상호간에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에 있어서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성의 밝은 지혜, 즉 영지적인 측면에 초점이 있는데, ‘살피다, 알아차리다’의 과정에도 이러한 비춤이 관여할 수 있다. 마음공부가 순숙되면 될수록 본래심 그대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살피면서 지켜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의미들과 연관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전」 염불법에서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三昧)를 증득(證得)하리라.”⁹⁷에서의 대중은 일념을 지키고자 공돌이는 것으로, 망념이 일어날 때는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염불 문구나 소리에 주하여 일념으로 돌이키는 거듭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음공부가 순숙될수록 자성을 관조하거나 반조하면서, 또는 그대로 비추면서 보다 깊고 고요한 일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관조, 반조, 비춤의 상태에서 찰나 간에라도 동요가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살피고 알아차림으로써 그대로 온전함을 지키는 것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핵심은 일념을 ‘지키는’ 것이지만, ‘살피다, 알아차리다’와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의 과정이 동시에 개입될 수 있다.

이러한 중첩되는 측면들로 인해 대중의 의미가 자칫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중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경계가 있을 때 마음공부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이 포함하고 있는 네 가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대중이 ‘표준하다, 기준하다’,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살피다, 알아차리다’,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라는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마음공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마음공부에서 대중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챙기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대중은 챙기는 마음이 기반이 되는 과정으로서, 한 마디로 불방심(不放心)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분석 과정에서 '대중'과 함께 사용된 동사들을 살펴보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잡다' '놓다, 놓지 않다' '있다, 없다'의 세 가지였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잡다'였고, 다음으로는 '놓다, 놓지 않다' '있다, 없다'가 서로 비슷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잡다와 놓다, 놓지 않다가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임을 감안할 때, 대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은 대중을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이 마음을 잡고 놓치지 않는 것, 말하자면 방심하지 않는 것과 가장 연관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대중의 네 가지 의미는 모두 '방심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그 챙기는 마음의 지속성과 세밀함이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소태산 대중사는 「대중경」 수행품 1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⁹⁸라고 하였고, 대산 종사는 유무념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한 마음을 챙기면 한없는 광명의 길, 진급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것이요, 한 마음을 놓으면 어두운 길, 강급의 길, 해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느니라.”⁹⁹라고 하였다.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은 마음공부에 입문한 초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덕목이며, 마음공부가 깊이 체득되고 순숙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분별심이 작동하는 것을 아는 것, 본래심 그대로 분별심의 치열한 흐름을 지켜보는 것, 본래심에 반조하는 것 등이 모두 챙기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으며, 이러한 챙기는 마음이 마음공부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IV. 원불교 예비교무들의 '대중'에 대한 인식 조사

실제 현장에서 대중의 의미와 마음공부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불교 마음공부에 있어서 비교적 초심자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수학과정에 있는 예비교무¹⁰⁰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및 분석 방법

대중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두 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은 ‘① 원불교의 교서 및 자료에는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대중’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② ‘대중’은 마음공부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였다.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총 83명의 예비교무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수거된 83부의 질문지 중에서 5부를 제외한 7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78명 중 학부생은 37명, 대학원생은 41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62명, 여자 16명이었으며, 연령은 만 19~41세 범위였다(평균 27세, 표준편차 4.6세).

분석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1차로 두 개의 문항 각각에 대한 응답 내용을 유사한 내용별로 묶어서 분류하고, 묶음을 대표하는 제목을 부여하였다. 한 사람의 응답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의미와 역할이 보고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대중’이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므로 각각의 의미와 역할을 서로 다른 응답으로 취급하였다.

이후 원불교학 전공 박사 1인, 국문학 전공 박사 1인과 논의하면서 전반적인 분석 내용을 수정하였다. 분석에 참여한 두 명의 박사학위자는 모두 원불교 교무이다.

2. 분석 결과

1) '대중'의 의미

대중의 의미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서 및 자료의 용례 분석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하다, 기준하다',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살피다, 알아차리다',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의 네 가지 의미로 분류되었다.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유사한 내용들은 한 가지 표현 아래 묶어서 정리하였으며, 한 사람의 응답에서 같은 의미가 유사한 표현으로 여러 개 기술된 경우에는 이 중 두 개만 제시하였다. 또한 예를 들어 '표준'과 같이 한 가지 표현이 여러 사람의 자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모아서 한 번만 제시하였다.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한 예비교무들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하다, 기준하다	
• 표준 - 표준을 가지는 것, 표준을 잡는 것, 표준삼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표준, 가운데 표준, 교리에 근거한 공부 표준 혹은 개인의 공부 표준, 큰 줄거리에 대한 표준, 표준에 대조하여, 교법에 근거한 자신 마음공부의 큰 표준, 공부를 하는 데 기준이 되는 표준, 우리 공부에 있어서도 신앙과 수행의 표준, 대체로 한 곳으로 흘러 중심이 되는 표준, 일원상의 진리를 표준 • 기준 - 마음의 기준, 구체적인 기준, 기준을 잡고, 중심의 기준, 중심이 되는 기준, 기준점, 사사로운 것에 끌려서 정한 것이 아닌 공정한 기준, 속으로 생각하는 기준,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도덕성으로 기준, 기준이 되는 하나의 포인트	- 대조의 기준, 끌려가는지 끌려가지 않는지 자신이 세워 둔 기준(단 교법에 근거하여), 기준이 되는 점, 목적이나 틀에 맞는 또는 진리적인 기준 • 근본 - 근본이 되는 것, 자신이 마음에서 잡기 쉽게 이미지 할 수 있는 것 중 근본에 해당하는 것 • 방향 -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 방향, 어떤 일을 할 때 그 핵심 되는 주제나 흐름의 방향 • 나침반 - 마음에 진솔함이 담겨있고 옳고 그름을 여러번 생각하는 것 • 한 가닥을 잡고 • 모범 • 표본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 중심 - 큰 중심, 큰 가운데 중심을 놓지 않는, 중심을 잡고 행하는 것, 대강의 큰 줄기,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끌리고 안 끌리는 데에 있어 더위잡는 중심, 무언가의 중심을 잡고 한다는 뜻, 나의 본래 마음(자성)에 중심 • 중도 - 시중, 중도를 의미,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 중도행, 그때그때에 적중하는 중을 챙기기,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잡는 것, 자기 마음대로와는 다르게 편착되지 않고 진리를 닦도록 중도행과 같이 원만한 특성 • 목표를 정하여 그 목표를 잊지 않고 늘 생각 하는 것 -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 중간에 설정해두고 그에 가까워지기 위한 세부 목표	• 어떠한 것에 대한 본질, 대의 • 본래 성품으로 마음잡고 • 경계에 마음이 끌려가기 전 • 집중 • 온전함, 온전한 마음 •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음 • 분별이 없는 것,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 일심 • 주함 • 우리의 신심과 공부심을 지탱해주는 기동 • 일원의 진리이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착됨이 없는 것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 흔들림 없는 올곧은 • 심계 • 생각이전의 의지

살피다, 알아차리다	
• 바라보고 있는 바를 놓치지 않고 있는 '감'의 상태 • 대, 중 같은 크기 구분을 명확히 잡아간다는 의미 • 알아차리는 것 • 끌렸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그 경계를 바라보는 나 • 바라봄	• 현재의 마음상태를 살피고 주의하는 공부심 • 알아차리는 생각 • 전체(또는 하기로 한 일 등)를 두루 살피는 마음 • 세밀하지는 않으나 감을 유지하는 상태 • 챙겨서 가리내는 마음 • 성찰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	
• 공적영지가 눈앞에 드러난 앎, '아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 지각 인식된 개체 자체에 마음이 매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조하여 대상을 비치는 것	• 흠여지는 마음을 성품자리에 대입하여 관하는 것 • 반조

대중의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예비교무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표준하다, 기준하다'로, 전체 응답 중 47.2%를 차지하였다. 즉, 예비교무들은 나머지 세 가지 의미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로 '표준하다, 기준하다'라는 의미를 대중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로 40.6%의 상당히 높은 반응비율을 보였는데,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와 관련하여서는 높은 반응비율뿐만 아니라 가장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서나 자료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었던 '중심' '중도'를 대중의 의미로 기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많은 예비교무들이 대중을 중심을 잡거나 또는 한편에 치우치거나 끌리지 않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는 '살피다, 알아차리다'가 9.8%,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가 2.4%의 응답비율을 보였는데, 위의 분류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라는 의미를 감지한 경우는 매우 소수에 그쳤다.

한편, 예비교무 중에서는 세 명의 응답에서 '온전한 마음챙김' '챙기고 있는가? 놓고 살고 있는가?' '마음을 챙기는 것'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대중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인 챙기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나, 대중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대중'의 역할

대중의 역할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는 '목표, 목적, 방향 제시,' 둘째는 '표준, 기준 제시,' 셋째는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며, 공부심을 다시 챙길 수 있게 함,' 넷째는 '중심을 잡게 함'이다.

대중의 역할에 대해 다수의 응답에서 '중심, 중추의 역할,' '핵심이며 전부,'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 마음의 대중을 잡고 안 잡고는 중요하다 생각,' '사소하게 보이나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나타났는데, 이는 예비교무들이 대중이 마음공부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의 역할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 목적, 방향 제시	
• 공부하는 방향으로 • 방향성 • 방향성(옳고 그르게 알맞게 나아가고 있는지) • 방향을 잡아 정진할 수 있게 하며 • 방향을 제시해 줌 • 공부의 방향을 정하고, 그 결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네비게이션 • 방향침, 나침반 역할 • 마음공부의 시작.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어 잡아 나의 생활과 삶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 • 대중이 있어야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똑바로 신속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 • 공부의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	• 마음의 전체나 일부를 쉽게 찾도록 길을 제시 해주는 이정표 • 마음이 지향하는 목표점을 제시 • 본래 목적하는 바 목적지 • 자신의 공부 계획, 일정 등을 대중에 맞게 짜 게 된다 •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공부의 세부적인 부분이 변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명확히 인지하게 만들고 가장 맞는 공부를 통해 최종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 내가 하고자 하는 바(목적, 목표)를 늘 상기시 키고,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역할 •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삶이 되고 은혜와 보은, 나의 진급이 되어 낙원이 개척된다 • 진급, 해복의 문로 등 이상향을 실천하고 다가 가도록 하는 원동력 • 마음이 도중에 다른 길로 새려는 걸 막아주고
표준, 기준 제시	
• 표준, 기준 • 경계를 당해 대조하는 표준 • 취사의 표준 • 일일이 대조할 수 있는 표준 • 바른 길잡이 역할(한 마음이 났을 때 사심인 지 허공의 마음인지 대조해보는 표준, 바른 마음을 가려낼 때의 표준) • 마음공부의 표준 • 공부의 표준, 자신이 세워둔 기준 • 취사와 공부의 표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역할 • 표준잡고 밀고 나가게 하는 것 •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표준이 된다	• 본래자리의 표준 • 기준으로서의 역할 • 기준이 있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마음의 방향을 다시 쉽게 찾을 수 있다 • 마음공부에서 어느 하나에 표준을 삼는 것 • 보다 현실적인 공부의 척도 • 마음을 정하는 기준 • 마음의 옳고 그름, 밝음과 어두움, 뚜렷함과 흐릿함 등의 상대적인 기분을 구별하고 그 중심에 기준을 잡는 역할 • 붓글씨의 표준 • 척도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며, 공부심을 다시 챙길 수 있게 함	
• 마음의 주인 역할. 생각, 감정, 욕구는 때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데 ‘대중’은 내가 나로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 • 깨어있는 상태, 무시선 공부의 핵심. 깨어있는 마음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유념과 무념의 공 부를 하고 그 공부가 잘 되었을 때 복과 혜를 얻을 수 있다 •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 마음변화의 지침이 되나 생각으로 번지지 않게 한다. 예로,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맴돌게 하는 것은 대중 있는 마음이 아니고 변화를 주지 못하나 실제로 실체 없는 의 지가 몸을 일으키는 대중 있는 마음의 사용이다 • 놓치지 않고 공부로 나아가게 한다 • 마음은 보이지 않기에 처음에는 생각으로 접 근하여 대중 잡아서 마음의 존재를 더욱 그리 고 명확히 알아가는 것, 즉 대중은 말 그대로 마음을 바라보는 것 • 마음이 작용하고 흘러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옳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 • 관조하는 것. 사랑 분별심으로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굴굴리고 관조함 • 내 마음을 살피게 도와준다, 어디에 끌리는지 • 자신만의 마음 대중을 잘 잡으면 공부가 훨씬 재미있고 마음 성장의 커가는 정도와 상태가 빠르고 안정감 있어짐	• 일원상 진리에 바탕해서 전개되는 현실에 맞게 각자 근기에 따라서 • 마음공부에 있어서 형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필요하고 수준에 맞는 사실적인 공부를 하게 함 •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쉽게 더위잡기 어렵기에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잡다’ 등에 있어서도 그 ‘마음’을 보다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 • 마음을 챙기고 바라봄으로써 현재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공부의 시작이 된다 • 어떤 경계가 다가올 때 바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대소유무와 시비이 해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도록 한다 • 모든 사람의 심정을 들여다보기도 하고(관찰) 내 입장도 고려해 봐서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함 • 놓고 지내다가도 다시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주의심을 가지게 한다 • 공부에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는 근본, 바탕, 또는 시작점 • 추상적인 마음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 실지 공부에서 경계임을 알아차린다

중심을 잡게 함	
• 흔들리지 않는 중심 • 중심, 중추의 역할 • 중심점 • 중심을 잡게 된다 • 내 마음의 중심 챙기기 • 온전함을 유지하는 역할 • 본래 청정한 마음을 놓지 않게 • 온전한 마음을 중심 있게 잡아주는 역할 • 한쪽에 편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경계에 따라 서 흔들리지 않는, 중도의 역할 • 착된 바 없이 그러나 소소영령하게 있는 것을 아는 공부 •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해준다 • 정신수양의 결정체로, 흔들림이 없는 본래 자 성이자, 성품, 철주의 중심이다 • 자성반조를 통해 공부할 때 그 본래자리 • 마음이 본래의 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본래 청정한 혹은 안정된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고향	• 마음이 었나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 • 본래 나로 돌아가게 하는 힘 • 정신을 모아 안정을 얻고 바른 생각과 취사를 하게 한다 • 주체성 • 경계속에서 법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마음이 본래의 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 본래 청정한 혹은 안정된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고향 • 경계를 당했을 때 휩쓸리지 않고 잘 돌릴 수 있는 힘이 되어 준다 • 사리 간 상황마다의 핵심 꿰뚫기 • 끌리는 나를 잡아주는, 경계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닌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을 부려줄 줄 아는 힘을 준다 • 치우침 없이 전체를 살피게 해준다 • 주관이 흔들려 공부길을 놓지 않게 한다

대중의 역할에 대해서 예비교무들은 첫째, 목표, 목적,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 예비교무들은 방향성, 나침반, 목표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먼저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방향을 제시해줌', '방향을 잡아 정진할 수 있게 하며', '공부의 방향을 정하고, 그 결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네비게이션'과 같이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었다. 나침반에 대한 표현 역시 크게는 방향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똑바로 신속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목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마음이 지향하는 목표점을 제시', '본래 목적하는바 목적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목적, 목표)를 늘 상기시키고,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역할'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예비교무들은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삶이 되고 은혜와 보은, 나의 진급이 되어 낙원이 개척된다', '진급, 행복의 문로 등 이상향을 실천하고 다가가도록 하는 원동력'과 같이 대중이 마음공부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 즉 목표로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표준과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것이다. 표준과 기준은 대중의 의미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예비교무들이 의미뿐 아니라 역할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이나 기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들이 응답에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경계를 당해 대조하는 표준', '취사의 표준', '일일이 대조할 수 있는 표준', '마음공부에서 어느 하나에 표준을 삼는 것', '마음공부의 표준', '기준으로서의 역할' 등이다. 교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용례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표준이나 기준을 제시해주는 대중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보다 명료한 표현으로 기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대중이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며, 공부심을 다시 챙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비교무들의 응답 내용으로는 '생각, 감정, 욕구는 때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데 '대중'은 내가 나로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 '내 마음을 살피게 도와준다, 어디에 끌리는지', '놓고 지내다가도 다시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공부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등이 있었다. 또한 예비교무들은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고, 형식적인 공부가 아닌 각자의 근기와 현실에 맞는 공부를 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공부심과 관련해서도, 대중이 마음공부를 지속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을 다시 챙겨서 마음공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대중의 역할, 즉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며, 공부심을 다시 챙길 수 있게 하는 역할에 대한 응답은 나머지 세 가지 역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고 자세하게 기술이 되었는데, 그만큼 다수의 예비교무들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대중의 역할은 중심을 잡게 한다는 것이다. 응답 내용을 볼 때, 예비교무들은 대중이 온전함, 본래의 청정한 마음, 자성반조를 할 때의 그 본래 자리 등의 표현과 같이 본래심을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끌리는 나를 잡아주는, 경계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닌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을 부려 쓸 줄 아는 힘을 준다’, ‘경계 속에서 법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한쪽에 편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경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중도의 역할’, ‘경계를 당했을 때 휩쓸리지 않고 잘 돌릴 수 있는 힘이 되어 준다’와 같이 경계를 대했을 때 치우치거나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아가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대중’의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에서의 함의

대중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에서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첫째는, 대중의 의미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중의 의미에 대한 분류 결과, 예비교무들은 대중을 ‘표준하다, 기준하다’라는 의미로 지각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라고 지각하고 있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의미에 대한 인식 비율은 전체 중 88%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많은 예비교무들이 대중의 의미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중을 ‘표준하다, 기준하다’로 지각하는 예비교무들이 가장 많은 것은 예비교무 교육현장이 갖고 있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예비교무로서 수학하는 기간은 마음공부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초심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예비교무들이 스스로 마음을 단련해갈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시기라고 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표준이나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집심(執心) 차원의 공부 방법이 학생들에게 가장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자칫하면 예비교무들에게 마음공부의 방법이 표준이나 기준을 따르거나 어떤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인식되거나 이런 방법에 고착될 위험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중이 마음공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끼고 있는 예비교무들이 대중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고 이를 자신의 마음공부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인 ‘살피다, 알아차리다’와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의 의미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역할에 대한 분석 결과, 많은 예비교무들이 대중의 역할 중 하나로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게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대중의 의미 자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살피다, 알아차리다’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라는 두 가지 의미는 특히 마음의 보다 본질적인 차원과 좀 더 연관성이 있는데, 관조하고 반조하고 밝게 비추는 것은 자성의 밝음 그대로 현상을 보는 영지적 차원으로서, 마음공부가 순숙될수록 영지의 밝음 그대로 현재의 마음 작용을 살피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아는 것은 예비교무들로 하여금 내면 상태에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본질적인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집착을 놓게 하며, 실제 경계 속에서 내면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온전함을 체득할 수 있게 하여, 결국에는 기질과 심성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나머지 두 가지 의미를 마음공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얻게 된다. 예를 들면, 본래심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음공부를 지도할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측면들이다.

둘째는, 대중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교육할 때는 보다 분명한 의미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교서 및 자료에 사용된 용례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미들을 도출하였으며, 예비교무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중의 의미 또한 같은 내용의 의미들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의 특성상, 대중 역시 자칫 모호하게 전달되어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중이라는 단어는 실제 적용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만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 가지 의미 내에서도 개인의 마음공부 수준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에서의 구체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비교무들은 기본적으로 「정진」과 「대중경」 등의 원불교 교서들을 공부하면서 원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성자의 본의와 교법의 대체를 파악하여 마음공부를 통해 이를 체득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서 및 자료에 나타난 용어들의 의미가 바르고 명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중이라는 표현 역시 교서 및 자료의 각 내용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평소 경계를 대하여 대중 잡는 법을 지도할 때에도 대중의 의미가 교육자의 의도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예비교무 교육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교법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습득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V.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 교서 및 자료에 사용된 대중이라는 표현이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진」을 비롯한 8가지의 교서 및 자료에서 '대중'이 포함된 총 38개 항목을 추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용례 분석을 하였다. 또한 대중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부와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원불교 예비교무들을 대상으로 대중의 의미와 마음공부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중이라는 표현은 초기교서부터 최근의 교서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모두 마음공부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원불교 마음공부는 “마음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사용하는 공부”¹⁰¹로서, “현실적 경계의 인식은 마음공부의 출발점이다.”¹⁰² 그리고 인식한 후에는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공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마음공부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중’이다. 본 연구 결과, 대중은 ‘표준하다, 기준하다’,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살피다, 알아차리다’,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내용은 경계를 대하여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공부해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대중은 마음공부의 기본적인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원불교 예비교무들 역시 대중이 마음공부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중적인 의미들은 마음공부를 시작하는 초심자 단계부터 순숙된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마음공부의 주제, 처한 상황 등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중적인 의미들이 잘 활용되어 실제 마음공부 장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예비교무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앞으로 대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대중의 용례들을 실제 마음공부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는 것도 마음공부와 연관성을 보다 밀도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용례들 중에서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용례들을 제외시켜보거나, 교조인 소태산 대중사의 법문만을 중심으로 용례의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는 것도 다양한 접근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마음공부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대중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원불교 예비교무들의 인식 내용을 조사한 것은 대중에 대한 이론적 연구 성과로서 뿐만 아니라 예비교무들의 마음공부를 돕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원불교학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교서 및 교법을 바르고 명확하게 해석하는 일인 만큼, 대중과 같이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본의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가 그 여정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 교서 및 자료에 사용된 ‘대중(大中)’이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전」을 비롯한 8가지의 원불교 교서 및 자료에서 ‘대중’이 포함된 총 38개의 항목을 추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용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중은 ‘표준하다, 기준하다’,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살피다, 알아차리다’,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의 네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불교 마음공부와와의 관계에서 대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표준 또는 기준할 것인지와 같이 한 가지 의미 내에서도 마음공부상의 실제 적용에서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둘째는 네 가지 의미가 서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며, 셋째는 마음공부에서 대중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챙기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현장에서 대중의 의미와 마음공부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불교 예비교무 78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대중의 의미는 용례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의 네 가지 의미로 분류되었으며, 대중의 역할은 ‘목표, 목적, 방향 제시’, ‘표준, 기준 제시’,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며, 공부심을 다시 챙길 수 있게 함’, ‘중심을 잡게 함’의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에서의 함의는 첫째, 대중의 의미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대중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교육할 때는 보다 분명한 의미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원불교 마음공부, 대중, 의미, 예비교무, 교육

References

-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메이트 국어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1996.
- 박정훈, 『한울안한이치에』,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2.
- 박희종, 「무시선법 중 경계에 대한 인식과 수행의 단계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42집, 2009.
- 백준흠, 「원불교 마음공부에 관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28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4.
- 원불교 경전법문집, 원불교 홈페이지, <https://won.or.kr/>
- 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홈페이지, <https://won.or.kr/>
-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1: 정전대의』,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6.

-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2』,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8.
-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3』,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8.
-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4』,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3.
- 원불교정화사,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5.
- 원불교출판사, 『대산종사법어』, 익산: 원불교출판사, 2014.
- 원불교출판사, 『원불교 교고총간1,2,3,4,5,6권』,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4.
- 이광전, 『대종경선외록』,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5, 99쪽.
- 이광정, 『마음수업』, 서울: 휴, 2011.
- 이경열, 「원불교의 마음공부」, 『종교학보』, 한국종교간대화학회, 2006.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이야기』, 서울: 집문당, 2014.
- 장진영, 오용석, 「마음공부에 있어서 반조(返照)의 역할: 禪불교와 원불교를 중심으로」, 『공자학』, 제32호, 한국공자학회, 2017.
- 정정임, 「원불교 마음공부 기반 인성교육 연구동향과 그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9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 조명규, 이경열, 「원불교 마음공부 진행매뉴얼 개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2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 한내창, 「원불교 ‘마음공부’ 정의(定義)의 한 시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29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5.

Endnote

- 1 한내창, 「원불교 ‘마음공부’ 정의(定義)의 한 시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29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5, 163쪽.
- 2 범명 박중빈, 1891-1943, 전남 영광 출생, 1916년 4월 28일에 대각(大覺)을 하고 원불교를 개교.
- 3 원불교정화사,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5, 130쪽.
- 4 원불교 제2대 종법사, 범명 송규, 1900-1962, 경북 성주 출생.
- 5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908쪽.
- 6 한내창, 앞의 글, 174쪽.
- 7 이경열, 「원불교의 마음공부」, 『종교학보』, 한국종교간대화학회, 2006, 126-127쪽.
- 8 한내창, 위의 글, 171쪽.
- 9 같은 글, 173-174쪽.
- 10 원불교정화사, 위의 책, 125쪽.
- 11 같은 책, 878쪽.
- 12 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홈페이지, <https://won.or.kr/>
- 13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메이트 국어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1996, 360쪽.
- 14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163쪽.
- 15 같은 책, 884쪽.
- 16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21쪽.
- 17 같은 책, 130쪽.
- 18 백준흠, 「원불교 마음공부에 관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28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4, 126쪽.
- 19 정정임, 「원불교 마음공부 기반 인성교육 연구동향과 그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9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225쪽.
- 20 박정훈, 『한울안한이치에』,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2, 13쪽.
- 21 이광정, 『마음수업』, 서울: 휴, 2011, 23쪽.
- 22 조명규, 이경열, 「원불교 마음공부 진행매뉴얼 개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2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151-190쪽
- 23 같은 글, 157쪽에서 재인용.
- 24 원불교의 신앙적 차원의 교리로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을 말한다.
- 25 원불교의 수행적 차원의 교리로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말한다.
- 26 조명규, 이경열, 위의 글, 158쪽.

- 27 같은 글, 158쪽.
- 28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102쪽.
- 29 장진영, 오용석, 「마음공부에 있어서 반조(返照)의 역할: 禪불교와 원불교를 중심으로」, 『공자학』 제32호, 한국공자학회, 2017, 225쪽.
- 30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 31 같은 책.
- 32 같은 책.
- 33 원불교출판사, 『대산종사법어』, 익산: 원불교출판사, 2014.
- 34 이광전, 『대종경선외록』,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5.
- 35 박정훈, 앞의 책.
- 36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1: 정전대의』,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6,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2』,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8,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3』,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8,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4』,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3.
- 37 원불교출판사, 『원불교 교고총간 1,2,3,4,5,6권』,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4.
- 38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60쪽.
- 39 같은 책, 122쪽.
- 40 같은 책, 163쪽.
- 41 같은 책, 804쪽.
- 42 같은 책, 859쪽.
- 43 같은 책, 878~879쪽.
- 44 같은 책, 893쪽.
- 45 같은 책, 1012쪽.
- 46 이광전, 앞의 책, 111쪽.
- 47 박정훈, 앞의 책, 44쪽.
- 48 같은 책, 219쪽.
- 49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3』, 앞의 책, 54쪽.
- 50 원불교출판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2권』, 앞의 책, 319~320쪽.
- 51 원불교출판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3권』, 앞의 책, 593쪽.

- 52 원불교출판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4권』, 앞의 책, 226쪽.
- 53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62쪽.
- 54 같은 책, 163쪽.
- 55 같은 책, 205쪽.
- 56 같은 책, 307쪽.
- 57 같은 책, 868쪽.
- 58 같은 책, 885쪽.
- 59 같은 책, 895쪽.
- 60 원불교출판사, 『대산종사법어』, 앞의 책, 62쪽.
- 61 박정훈, 앞의 책, 31쪽.
- 62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64쪽.
- 63 같은 책, 73쪽.
- 64 같은 책, 172쪽.
- 65 같은 책, 845쪽.
- 66 같은 책, 878쪽.
- 67 원불교출판사, 『대산종사법어』, 앞의 책, 65쪽.
- 68 이광전, 앞의 책, 99쪽.
- 69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1: 정전대의』, 앞의 책, 223쪽.
- 70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2』, 앞의 책, 27쪽.
- 71 원불교정화사, 위의 책, 845쪽.
- 72 박정훈, 앞의 책, 72쪽.
- 73 같은 책, 217쪽.
- 74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2』, 위의 책, 29쪽.
- 75 원불교출판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4권』, 앞의 책, 41쪽.
- 76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917쪽.
- 77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 앞의 책, 224쪽.
- 78 원불교 경전법문집, 원불교 홈페이지, <https://won.or.kr/>
- 79 원불교정화사, 위의 책, 60쪽.
- 80 같은 책, 125쪽.

- 81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3』, 앞의 책, 54쪽
- 82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62쪽.
- 83 같은 책, 163쪽.
- 84 같은 책, 205쪽.
- 85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307쪽.
- 86 같은 책, 845쪽.
- 87 같은 책, 64쪽.
- 88 같은 책, 73쪽.
- 89 같은 책, 845쪽.
- 90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2』, 앞의 책, 27쪽.
- 91 이광전, 앞의 책, 99쪽.
- 92 이부영, 『분석심리학 이야기』, 서울: 집문당, 2014 참조.
- 93 박정훈, 앞의 책, 56쪽.
- 94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사법문집2』, 앞의 책, 27쪽.
- 95 박정훈, 위의 책, 217쪽.
- 96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822쪽.
- 97 같은 책, 62쪽.
- 98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140쪽.
- 99 원불교출판사, 『대산종사법어』, 앞의 책, 65쪽.
- 100 원불교 성직자인 교무가 되기 위해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칭.
- 101 장진영, 오용석, 앞의 글, 210쪽.
- 102 박희종, 「무시선법 중 경계에 대한 인식과 수행의 단계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42집, 2009, 33-34쪽.